

사김의교회 다락방공과

사도행전 IV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귀는

사김의
교회

사권의교회 다락방 공과

사도행전 IV

지은이 | 유병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귀는

사권의
교회

CONTENTS

들어가는 말	6
1과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 행 16:35-40	13
2과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행 17:1-9	18
3과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분을 따라가다 행 17:16-22	23
4과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행 17:10-15	28
5과 고린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행 18:1-11	33
6과 틈입하시는 주의 말씀 행 19:20	38
7과 도심 속 그리스도인 행 19:11-28	43
8과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행 20:17-35	49
9과 부활을 살다 행 20:1-12	55

풍성한 다락방을 위한 가이드

1. 다락방의 모델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다락방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2. 다락방 교제 **예습**을 해야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관찰 및 생각하기, 묵상과 적용 문제로 미리 자신을 돌아볼 때, 다락방 나눔의 은혜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3. 다락방 나눔은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연구 모임으로 흐르거나 한 주간의 삶만 나누면 어떤 영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4. 다락방은 **관계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다른 성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넓어질수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5. 다락방 나눔 시, 나눔을 하시는 성도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경청**할 때, 서로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공과 나눔 시간 뿐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다락방 시간입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락방 서약서

우리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에 함께 서약합니다.

1.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교제하되, 주님께서 우리 순장을 다락방의 인도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며 순장을 따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우리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며, 세속적인 교제(술, 도박, 불건전한 오락 등)를 금하고, 거룩한 교제에 힘쓰겠습니다.
3. 우리는 다락방 가족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결석과 지각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4. 우리는 다락방 모임 시 말씀을 나눌 때 누구든지 혼자서 말을 독점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모든 순원이 함께 골고루 나누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5. 우리는 다락방 안에서 나눈 개인적인 고백이나 약한 부분을 남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6. 우리는 다락방 모임에서 교회의 하나 됨을 세워 가는데 덕이 되지 않는 논쟁이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우리는 순원 상호 간에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불필요한 오해나 교제의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거나 꾸어주는 일 등 일체의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으며, 다단계 판매 등 상업적인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다락방명:

성명:

서명

들어가는 말

어느덧 무더운 계절을 지나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2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학기 동안 ‘병오년’의 이름처럼 힘차게 내딛던 우리의 걸음마다, 신실하게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학기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은혜로운 여정을 이어갑니다. 1학기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은혜의 사건들을 나누며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목격했다면, 이번 학기에는 빌립보를 넘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밀레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세상의 대도시들과 문화의 중심부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파고드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발을 디딘 1세기의 도시들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헛된 우상과 화려한 세속주의, 극심한 성적 타락, 그리고 기득권의 거센 저항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조차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친 도심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예비하셨고, 따뜻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으며, 무엇보다 밤마다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은혜로 사도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놀라운 진리는, 세상의 세속성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틈입하여 힘 있게 흥왕하며, 부활의 생명은 죽음의 절망마저 덮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삶의 현장 역시 바울이 거닐던 에베소나 고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쁜 속도감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

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성과 일터, 그리고 가정 역시 하나님이 눈물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선교지입니다.

사랑하는 사كم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학기 공과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를 붙드는 거룩한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작은 아레오바고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성육신적 사랑을 실천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는 영적 고귀함을 회복합시다.

말씀이 흥왕할 때, 절망의 자리에 부활의 위로와 생명이 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사도행전 29장(Acts 29)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 갑시다. 이 복된 2학기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뛰고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8월
여러분의 담임목사, 유병휘 드림

사도행전 개관

:: 들어가는 말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이자,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한다. 신약성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어떻게 오셨는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많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바울 서신에 언급된 교회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사도행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초대교회 형성 과정과

:: 사도행전의 저자¹⁾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데 이견이 없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견해는 교부들의 외적 증거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내적 증거에 근거한다. 초대 교부들은 한결 같이 의사 누가를 사도행전의 저자로 보았다. 누가가 사도도 아니고 열두 사도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인정을 받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성경 자체의 증거가 교부들의 증거보다 더 중요하다. 누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중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처음 등장한다(행16:10). 그 후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부터(행20:13-21:17) 로마로 후송될 때까지 그와 함께 했다(행27:1-28:15). 그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류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쓸 때에도 누가가 그와 함께 있었다(골4:14; 몬1:24). 누가는 바울이 2차 투옥되어 순교의 제물이 될 때에도 그의 곁에 있었다(딤후4:11). 저자는 한마디로 말해 무대 뒤에서 바울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증인이었다.

::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²⁾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는 빠르면 A.D. 55-59년, 늦으면 A.D. 150년으로 추정되어 그 편

1 유상섭, 『나의 사랑하는 책 사도행전』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7), 8.

2 유상섭, 『나의 사랑하는 책 사도행전』, 10.

차가 큰 편이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행히도 사도행전의 정확한 저작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는 책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를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사도행전은 저자의 첫 책, 누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였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는 누가복음의 저작 시기와 관련해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저자가 누가복음을 저술할 때 A.D. 65-70년 사이에 기록된 마가복음을 주요 자료 중 하나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누가복음은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임박했거나 이미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눅13:35; 눅19:43-44). 넷째, 저자는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바울 서신에 있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를 보았을 때 저자는 바울 서신들이 1세기 말경 하나로 수집되기 전에 사도행전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은 책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저자가 로마 황제 앞에서의 바울의 재판과 그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저술 목적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할 때, 사도행전은 짧게는 A.D. 70-80년 사이에, 길게는 A.D. 70-9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누가복음-사도행전, 한 권의 책³⁾

사실 저작 목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은 하나의 독립된 책이 아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1, 2부로 구성된 한 권의 책으로 구상하고 집필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집필된 책이라는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한 권의 책을 여러 섹션으로 나눠 각 섹션마다 서언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다.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1, 2부로 나뉜 책, 『유대 고대사』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집필하면서 2부의 서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경애하는 에바브로디도여, 이 글의 1부에서 나는 우리 민족의 오래됨을 증명했습니다. …마네도, 카에레몬 등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도전의 글을 썼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를 공격한 나머지 저자들을 반박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서언도 요세푸스의 글과 매우 흡사하다. 누가는 사도행전 첫머리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는 글로 시작한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처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을 때는 초대교회 안

3 이형일, “사도행전 개관,” 『묵상과 설교』 57 (2018): 10-11.

에서 한 권의 책으로 회람되었다. 그러다가 1세기 말~2세기 초경 네 권의 복음서에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사복음서가 하나로 수집되면서 누가복음은 아쉽게도 사도행전과 '결별'을 고하게 되었고, 사도행전은 하나의 독립된 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가장 주된 목적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글로 남기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 했을까?

첫째, 누가는 사도행전이 예수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확증해 주는 책이기를 원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그를 통해 나타난 구원 사역의 실체를 보여주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했으며 확증해 나갔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가 전한 구원이 참된 구원의 메시지이며 만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독자는 데오빌로와 같이 이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했던 비신자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독자층은 상당히 넓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도행전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한 전도의 책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그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누가의 최대 관심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임에도 틀림없지만, 그의 주된 독자층이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누가복음의 서언에서 밝힌 기록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누가는 자기의 글을 데오빌로에게 바친다. 데오빌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 누가-행전의 독자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펴 그가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데오빌로 역시 이미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의 견고함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누가는 자신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용'을 기초로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술하였다고 밝힌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신자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도행전은 예수와 초대교회가 전한 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만, 당시에는 이 사실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신학적 이슈였다. 그러면 누가는 이 사실을 사도

4 이형일, "사도행전 개관," 12-13.

행전을 통해 어떻게 입증할까? 그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모두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임을 보여준다. 누가는 예수의 초림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초대교회의 탄생과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사실이 모두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했다.

:: 사도행전의 메시지⁵⁾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누가를 사용하신다. 누가는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만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책을 집필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안에 자신이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메시지를 담아낸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의 손길을 만나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사도행전을 통해 전달하려 한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첫째,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으며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간다. 그중에서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자신을 인류에 계시하신 가장 결정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임을 말해준다(행2:23). 누가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다. 한 예로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는 사도들의 철저하게 계획된 선교 전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던 성도들을 흩으셨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친히 진행하신 것이다.

둘째, 사도행전은 복음이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퍼져 나갔음을 강조한다. 누가는 지속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시들어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확산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누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행14:22)는 사도 바울의 말을 특별히 인용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고난과 박해를 통해 더 넓게 전파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누가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의 저항과 스테반의 순교와 회심 이후 사도 바울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 포함시킨다. 더 나아가 누가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긴 과정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 소개한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함으로, 신실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함을 보여준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시들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5 이형일, "사도행전 개관," 14.

는 고난의 신학을 대변한다. 이것이 누가가 독자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고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 사도행전 개관

1:1-5:42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
1:1-2:47	초대교회의 시작
3:1-5:42	초대교회와 유대 지도자들
6:1-11:18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6:1-9:31	교회 부흥의 시작
9:32-11:18	이방인 선교의 시작
11:19-28:31	땅 끝까지 복음 증거
11:19-14:28	안디옥부터 소아시아까지 선교
15:1-15:35	교회 내 이방인에 대한 토론
15:36-18:17	바울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선교
18:18-20:38	바울의 소아시아 선교
21:1-28:31	바울의 체포와 투옥

1과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



📖 사도행전 16장 35-40절

35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36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 대

38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말씀나눔

우리는 지난 학기, 빌립보에서 일어난 은혜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에 매여 수많은 이들에게 이용당하던 한 자매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세상에 충성하며 살다가 절망에 빠진 한 교도관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가히 '하나님의 열심'이라 부를 만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바울의 걸음을 강권적으로 빌립보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행16:6-10).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는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빌립보 사역은 영혼들을 살리는 현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울 자신을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는 이처럼 세심하고 완벽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우리 모두를 세우시는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깊이 음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열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서로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날이 새자 상관들은 부하들을 보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어떤 신분을 밝히며 항의합니까? 이에 대한 상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행16:35-38)
2. 바울은 왜 체포될 당시 즉시 로마 시민권을 밝히지 않고,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야 이를 밝혔을까요?
3.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행11:19-21)
4. 이것으로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마무리됩니다(행16:39). 하나님은 왜 이리 급하게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5. 감옥에서 나온 바울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왜 그곳에 갔을까요? (행16:40)
6.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행11:29)

묵상과 적용

1. 바울은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즉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교회를 위해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수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맡겨드리는 것은 더 큰 믿음입니다. 최근 내 삶에서 나의 권리, 계산, 또는 해결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데로 향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다락방 공동체를 생각할 때 어떤 감사가 떠오릅니까? 순원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 하고 가니라”(행16:40)

예)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나눌 다락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번 학기가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을 앞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비우고 지운 채,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과 다른 임금 곧 예수라

📖 사도행전 17장 1-9절



- 1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 2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 3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 4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 6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 7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 8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 9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말씀나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거룩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은 완전히 상극(相剋)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런 마찰이나 고민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세상과 타협하느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히11:38)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공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낯선 땅,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떤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로마의 대도시에서 펼쳐지는 '예수 따름이'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세상에서, 나는 과연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식과 충돌하여 고민하거나 갈등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전도팀이 들었던 평가는 무엇입니까? (행17:6-7)
그리고 그 이유도 생각해 봅시다.
2. 어디를 가든 바울에게 몸에 배어 있던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행17:2-3)
3.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를 말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17:3; 참고. 갈3:13; 롬7:24; 고전1:23-25)
4.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고난은 무엇입니까? (행17:5-6)
5.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행17:3, 7)

묵상과 적용

1. 바울에게는 어디를 가든 '성경을 펼치고 복음을 나누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 새겨져 있는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혹은 이번 학기에 새로이 세우고 싶은 영적 습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신앙의 핵심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나의 재정,
시간, 진로, 관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가짜 주인(돈, 성공, 인정,
안락함 등)'은 없습니까? 예수를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는 고백을 나
눠봅시다.
3.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겪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던진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 거룩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데살로니
가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학기,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하
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나의 삶, 가정, 또는 다락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행17:3)

예) 예수님, 내 삶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가장 복된 삶을 깨닫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꾸만 다른 왕을 섬기려는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가이사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과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분을 따라가다



☞ 사도행전 17장 16-22절

16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19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말씀나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단지 말 한마디로 구원을 선언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유, 즉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험악한 동네인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30년을 육체노동자로 지내셨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온전히 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상처받은 이들과까지도 품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적 사랑을 닮아가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지성과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나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다가와 주고, 성육신적 사랑을 베풀어 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곳에서 우상을 보고 느낀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행17:16-18)
2. 당대 아테네의 대표적인 철학 파벌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행17:18, 32)
3. 바울은 아테네 지식인들의 요청으로 최고 의회이자 학문 토론장이었던 곳에 서게 됩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행17:19, 22)
4. 아레오바고 강단에 선 바울 설교의 주요 특징과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행17:19, 28, 34)
5. 아테네에서 가졌던 바울의 마음을 추측해 봅시다. (참고. 고전9:20-23)

묵상과 적용

1. 바울은 아테네의 우상을 보았을 때 방관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지혜로운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거룩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우상이나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곳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2.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로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의 눈높이를 맞춰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나의 아래오바고)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나 상처받은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태도나 새롭게 실천해야 할 ‘눈높이 사랑’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행17:16)

예) 아테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일 때도 많지만, 이 사랑 안에서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해(Understand)하기예, 그 사람보다 아래에 서는 우리, 그 자리에서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과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 사도행전 17장 10-15절



- 10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 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 13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 14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 15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말씀나눔

오늘은 바울이 ‘베뢰아’라는 도시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베뢰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아테네로 가기 전 들렀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성도들에게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을까요? 놀라운 점은, 베뢰아 성도들을 칭찬하며 비교하는 대상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선한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살전1:3)

그렇다면 베뢰아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공과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고귀한 영적 품격(유게네스)’을 갖춘 성도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유진(Eugene)’이라는 이름은 헬라어 ‘유게네스(고귀함, 신사적임)’에서 유래했습니다. 내 주변에서 언행이나 태도가 정말 ‘고귀하고 신사적이다’라고 느꼈던 사람(성도)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본문은 어떤 단어로 베뢰아 성도들을 칭찬합니까?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행17:11)
2. 베뢰아 성도들이 보여준 말씀을 대하는 2가지 핵심 태도는 무엇입니까? (행17:11)
3.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는 어떤 모습일지 나름의 언어로 그려봅시다. (참고. 시42:1)
4.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태도는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참고. 시1:2; 딤후4:8)
5. 말씀으로 충만했던 베뢰아 성도들이 보여준 삶의 열매를 추적해 봅시다. (행17:12; 15, 20:4)

묵상과 적용

1.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은 세속적 가문이나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유진(고귀한 자)’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번 학기에 결단하고 실천할 일을 나눠봅시다.
2. 베뢰아 성도들은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한 관념적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았기에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교회를 섬겼던 ‘소바더’ (행20:4)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나의 실제 삶에서 헌신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까? 내가 더욱 기쁨으로 섬겨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나눕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려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하므로”(행17:11)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해 너그러운 사람 (유진)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았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식으로 만 접했던 어리석음도 회개합니다. 말씀에 대해 유진으로, 말씀의 삶에 대해 소바더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과 고린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 18장 1-11절

- 1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 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 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 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 5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 6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 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 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 11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씀나눔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을 상대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변증했지만, 거둔 열매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새로 도착한 ‘고린도’는 아테네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사역하기가 너무나 까다롭고 만만치 않은 도시였습니다. 1세기 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를 품은 국제 무역 도시로서 세속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혼합 종교와 극심한 성적 타락, 사이비 사상이 판을 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훗날 칭했듯,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고전2:3) 사역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험난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18개월)동안 머물며 사역합니다(행18:11). 따뜻한 사랑이 넘쳤던 데살로니가 에서도 3주 남짓 머물렀던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서는 이토록 오래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공과에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바울에게 최고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밤에 말씀으로 찾아와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빨강머리 앤 자매님의 말처럼 말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들어가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낙심했던 순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만남’이나 ‘새로운 길’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과의 만남에서 바울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행18:1-3)
2. 바울은 왜 고린도에서 권리를 내려놓고 직접 노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립 사역(이중직)’을 택했을까요? (참고. 고전9:4-6; 고전9:12)
3. 바울에게 찾아온 또 다른 만남의 축복은 무엇이며, 이들이 도착한 후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행18:5)
4. 고린도의 세속적인 환경과 반대자들의 비방 속에서 두려워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밤에 환상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까? (행18:9-10)
5. 고린도라는 거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기대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묵상과 적용

1. 바울은 복음의 전진을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권리나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천막을 만드는 노동의 수고를 감수했습니다. 최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혹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거나 감수했던 편의나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 수고 뒤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의 흔적을 나눠봅시다.
2. 고린도의 거대한 세속적 벽 앞에서 바울도 두려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1년 6개월을 견디게 했습니다. 요즘 나의 마음을 두렵게하거나 위축되게 만드는 ‘내 삶의 고린도(환경, 사람, 경제적 문제 등)’는 어디입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해 봅시다.
3. 바울 곁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앙 여정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갖도록 곁을 지켜준 소중한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서로를 향해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9)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행18:9-10)

예)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과 걱정,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루시는 말씀의 능력, 만남의 축복, 사명의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사귄교회가 고린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과 틈입하시는 주의 말씀

📖 사도행전 19장 20절



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나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쌍둥이처럼 이어지는 책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고위직 인물(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을 향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 증명하고자 이 두 책을 썼습니다. 1부인 누가복음이 ‘개인의 믿음과 구원’을 세우는 책이라면, 2부인 사도행전은 그 믿음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대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승리 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살면 손해 볼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결국 최종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있음을 성경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교회속에서 어떻게 힘 있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그 현장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신앙적 결단이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다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편안하게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2차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 바울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행동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행18:18; 참고. 민6:18)
2. 아볼로가 가르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추측해 봅시다. (행18:24-25)
3.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준 믿음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아볼로는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행18:26)
4.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역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행19:11-12)
바울에게 있어,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참고. 행19:9)

묵상과 적용

1. 하나님은 말씀이 흥왕하기 전에 먼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울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뜻(행 18:21)을 최우선에 두었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서원)을 지켰습니다. 요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고 있습니까? (참고. 살전5:16-18)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힘 있게 역사하도록, 내가 내려놓고 거룩하게 결단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2. 아볼로는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평신도 부부(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였고,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 아볼로를 정죄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의 열매는 ‘겸손과 온유의 성품’으로 열매 맺힙니다. 나는 가족과 순원들, 동역자들을 대할 때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행19:20)
예)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내 삶과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면서도, 부흥에 어울리는 마음과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과 도심 속 그리스도인



☞ 사도행전 19장 11-28절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3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7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18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 22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 23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 24 죽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 25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 26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 27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
질까 하노라 하더라
- 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말씀나눔

바울의 선교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온갖 불편함으로 가득한 오지나 시골 마을을 다니며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4:11-12)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이르면 바울의 특별한 행보가 하나 포착됩니다. 그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거대하고 화려했던 대도시 '에베소'에 이르러, 무려 2년 넘게 머무르며 사역한 것입니다. 국제 무역과 금융, 화려한 우상 문화가 만연했던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토록 오래 머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코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도시 역시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그 특성상 바쁜 속도감과 세속적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도시야말로 복음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거룩한 선교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림의교회 역시 도시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비록 도시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곳이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이 도시를 사랑하며 복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번 공과를 통해 거친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온전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면서

도시 생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며, 반대로 나를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행19:11-12)
2.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는 그가 복음을 위해 직접 땀 흘려 노동할 때 사용하던 일상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feat. 다윗의 물맷돌)
3. 유대의 한 대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예수와 인격적 관계도 없이 바울을 흉내 내어 악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때 악귀는 이들을 어떻게 진단하며 공격합니까? (행19:13-16)
4.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참고. 엡2:20; 록19:40)
5. 에베소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크게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이며, 왜 그토록 강하게 반발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행19:23-28)

묵상과 적용

1. 하나님은 바울이 땀 흘려 일할 때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흘리는 땀과 수고, 일터에서의 성실한 태도는 그 자체로 거룩한 사명(성직)입니다. 나의 직장, 가정, 학업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현장'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 일상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땀방울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능력만 탐하거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영적 세력은 우리의 무력함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나와 우리 사귀의교회는 외형적 능력이나 형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 교제'로 충만합니까? 내 신앙에서 껌데기뿐인 모습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3. 순전한 복음이 도시에 들어가자, 우상에 매여 있던 경제와 가치관이 흔들리고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가치관, 소비 습관, 우선순위, 혹은 삶의 방식에 어떠한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1)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없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19:11-12)

예) 우리에게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성직으로 여기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시간이 지날수록 삶 속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는커녕, 세상 친화적인 모습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명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과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 사도행전 20장 17-35절

- 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 18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 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 20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 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 22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 25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 26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 27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 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 29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 30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 31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 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 33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 34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 35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나눔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랜디 포시 교수가 쓴 『마지막 강의』는 체장암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가 2007년 9월에 전했던 마지막 강연을 정리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과의 이별을 앞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강의’를 할 때 나를 병(瓶)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언젠가 해변에 닿아 우리 애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마지막 말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오늘 공과에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장로)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눈물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이자 목회자로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맡겼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이번 공과를 통해 바울의 목회 철학과 영성을 관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만약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가족, 순원 등)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진심의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관찰 및 생각하기

1.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 매우 바쁘고 무리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 보고(행20:13), 그가 이렇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 이유도 생각해 봅시다. (행20:16)
2.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목양하고 섬겼습니까? (행20:18-20; 23-24; 31, 35)
3. 바울이 이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행20:32; 참고. 빌3:12)

묵상과 적용

1.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울 힘이 바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32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과 우리 다락방을 진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최근 나를 경건하게 세워주고 위로해 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복음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삶에서 재설정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고백을 묵상하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는지 나눠봅시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복음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 팀 켈러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내가여러분을주와맞그은혜의말씀에부탁하노니그말씀이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행20:32)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길이요, 생명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의 말씀께 나의 삶(가정, 교회)을 부탁드립니다!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바울처럼, 쫓대를 향하여 믿음과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유용의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언제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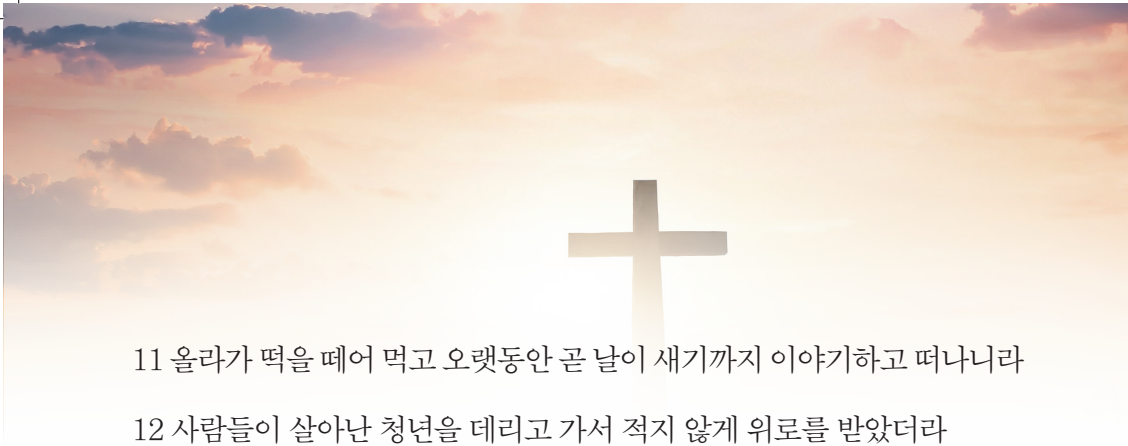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9과 부활을 살다



📖 사도행전 20장 1-12절

- 1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 2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한고 헬라에 이르러
- 3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 4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 5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 6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닛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 7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 8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 9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나눔

예배 중에 한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필 그날은 성도들이 모여 떡을 떼던 ‘안식 후 첫날(주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선포하고 누리던 날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던 거룩한 모임 한복판에 어두운 죽음의 그늘이 덮친 것입니다.

공동체는 큰 슬픔과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현장에서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청년이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은 순식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바뀌었고, 성도들은 날이 새기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일상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번 공과를 통해 유두고의 회복 사건 속에 담긴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고, 오늘 나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부활의 은혜와 큰 위로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이번 학기 사도행전을 나누며, 내 삶이나 영혼 속에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회복되었던 순간이나 은혜가 있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마케도니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여정에 동행했던 이방 교회 대표들은 누구입니까? (행20:1-4)
2. 이들의 동행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깊은 감격과 부활 신앙의 증거를 보여주었을까요?
3. 주일(안식 후 첫날) 밤, 바울이 강론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에게 일어난 비극은 무엇이었으며, 그 순간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겠습니까? (행20:7-9)
4. 바울은 유두고를 향해 어떤 행동을 취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 모인 사람들은 어떤 은혜와 위로를 누렸습니까? (행20:10-12)

묵상과 적용

1. 바울 곁에는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처럼 복음과 사랑의 연합을 위해 위험한 여정을 함께해 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낙심되는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부활 신앙을 붙들고 기도의 제물을 드려주는 내 곁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2.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큰 위로를 얻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은 모든 절망과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는 능력이 됩니다. 나의 일상, 가정, 직장, 혹은 영적 상태 중에서 '유두고'처럼 지치거나 죽어 있어 하나님의 부활 생명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행20:10)

예)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나의 소바더, 나의 세군도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그들과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귀의교회가 이들과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귀는

사귀의
교회